

최익현의 한라산 오르던 길



과거 제주성에서 한라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오등동을 지나야 했다. 유배인이었던 최익현은 한라산에 오르던 중에 이 마을에 머물렀던 여정을 유람기로 남겼다. 그가 걸었던 길을 따라 오등동 주변의 이야기를 만나보자.



한북로 | 제주시 오등동 1730-1 ~ 제주시 아라1동 424-3(약 3.5km)

정실동길 | 제주시 오라2동 141-4 ~ 제주시 오라2동 39-1(약 1.7km)

죽성길 | 제주시 오등동 248 ~ 제주시 오등동 348(약 0.9km)

남학길 | 제주시 오등동 763 ~ 제주시 오등동 1816-12(약 1.8km)

고다시길 | 제주시 오등동 762 ~ 제주시 오등동 1882-50(약 1.9km)

거북새미길 | 제주시 오등동 1730-4 ~ 제주시 오등동 964(약 2.8km)

아연로 | 제주시 연동 427-1 ~ 제주시 아라1동 1594-2(약 6.1km)

민오름길 | 제주시 오라2동 3160 ~ 제주시 오라2동 1637-4(약 1.3km)

오등봉길 | 제주시 도남동 1237 ~ 제주시 오등동 1317-2(약 1km)

대원길 | 제주시 아라1동 2745-5 ~ 제주시 오등동 497(약 1.9km)

보배길 | 제주시 아라1동 1831-1 ~ 제주시 오등동 177(약 0.8km)

한복로 / 정실동길 / 죽성길 | 정실마을과 면암 최익현



면암 최익현의 한라산 유람기

제주에서 유배가 풀린 후 바로 돌아가지 않고 한라산을 오른다. 그가 남긴 한라산유람기에 따르면 제주성 남문을 나선 일행은 정실마을을 지나 방선문에 들렀다. 정실마을과 연결되는 도로인 **정실동길**을 따라 오르면 방선문에 다다른다. ‘신선을 찾는 문’이라는 뜻의 방선문은 마치 커다란 문처럼 구멍이 뚫려있는 계곡의 바위를 말한다. 최익현은 이곳에서 바위에 새겨진 마애명과 꽃들이 피어있는 풍경을 감상했다. 지금도 방선문에 가면 최익현의 이름이 새겨진 마애명을 찾을 수 있다.

한복로는 정실마을을 지나 제주대학로로 향하는 길이다. 오등동과 아라동을 이어주는 길로 오등동의 옛 이름인 한복동을 반영했다. 옛날 오등동은 오등생리로 불렸는데 마을에 학자들이 모여 살게 되면서 이름을 한복으로 바꿨다. 하지만 20세기 초에 마을 사람들 중 일부가 민란에 연루되어 마을의 이미지가 좋지 않아지자 오등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오등동의 정실마을은 면암 최익현이 방문했던 곳이다. 조선말기 강직한 선비로 잘 알려진 최익현은



방선문

통해 하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한라산을 오르면서 들른 백록담, 영실, 오백장군 등을 구경한 소감을 글로 남겼다. 최익현이 남긴 한라산유람기는 당시 한라산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방선문을 지난 최익현이 들른 곳은 죽성마을이다. 그의 기록에 ‘마을이 대나무로 둘러싸여 있다’고 한 것을 보면 대나무가 많아서 죽성마을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이 마을의 이름을 딴 길이 **죽성길**이다. 이 마을은 4·3사건 때 큰 피해를 입고 마을이 사라지는 아픔을 겪었지만 오늘날 다시 마을을 이루어 살고 있다. 최익현은 죽성마을에서 하루를 지낸다. 다음날 날씨가 좋지 않아 모두들 한라산 등반을 말렸지만, 최익현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금의 관음사코스를 이용해서 백록담에 올랐다가 영실코스를

남학길 | 남학당

한북로에서 남쪽으로 갈라지는 길 중에는 **남학길**이 있다. 이 길은 예전에 남학당이 들어서 있던 마을을 의미한다. 남학당은 1883년에 한응호(韓應浩) 목사가 세운 사설 교육 기관이다. 과거 제주도 각 지역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좌학당, 우학당, 남학당, 서학당 등을 지어서 유생들의 교육을 담당했다고 한다. 지금은 흔적을 볼 수 없고 ‘남학당터’라는 지명만이 전해온다.

고다시길 / 거북새미길 | 고다시마을

남학길 서쪽에는 역시 한북로와 이어진 **고다시길**이 있다. 이 길은 고다시마을의 지명을 적용한 이름이다. 고다시마을은 17세기 후반 굴림서원 교수를 지낸 정희관이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책을 보관한 서재고와 선비들이 공부를 하던 곳인 허문터 등이 마련되면서 많은 선비들이 모여들었다. 이곳에서 시문을 짓고, 경전을 공부하며 과거시험을 준비했다고 전한다. 이후 한자로 표기되면서 간다시(良多時)로 표기되기도 했다. 이 마을 역시 4·3사건 때 마을이 소개되었던 역사를 갖고 있다.

한북로와 이어진 또 다른 길로는 거북새미길이 있다. **고다시길**의 서쪽에 있는 이 길은 거북이처럼 생긴 지형에서 물이 솟아나는 샘이 있다는데서 유래했다. **거북새미길**의 서쪽에는 한라산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다. 제주시내에서는 높은 건물들에 가려 한라산을 제대로 보기가 힘든데, 이곳에서는 날씨가 좋으면 한라산의 웅장한 모습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다.

아연로 / 민오름길 | 민오름에 이르는 길

아연로는 아라동과 연동을 잇는 길이다. 정실입구 교차로에서 시작한 길은 민오름과 오드싱오름을 지나 아라초등학교 교차로까지 이어진다. 이 길은 한북로와 더불어 신제주와 아라동을 잇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아연로가 시작되는 인근에는 민오름이 있다. 오름 북쪽에 나있는 **민오름길**을 따라가면 입구



민오름

에 도착한다. 민오름은 나무가 자라지 않고 수풀만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하지만 지금은 소나무와 예덕나무, 보리수나무, 상수리나무 등 다양한 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 도심에 위치한 오름이라 정상에 오르면 신제주의 모습이 한 눈에 내려다보인다.

오등봉길 / 대원길 | 오드싱오름

민오름의 동쪽에는 오남로를 사이에 두고 오드싱오름이 있다. 아연로와 이어지는 **오등봉길**을 따라 가면 만날 수 있다. 오드싱은 오등동의 옛 이름이다. 옛 문헌에 보면 오드싱마을로 표기했던 기록이 남아있다. 이 오름을 한자로 표기하면서 오등봉(梧登峰)이라 했다. **오등봉길**은 이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다. 오드싱오름의 동쪽에 위치해 있는 오구시오름은 아연로에서 갈라진 **대원길**을 통해 다다를 수 있다. **대원길**은 주변에 큰밭이 많다는데서 유래된 이름이다.

보배길 | 보미물

제주대학병원 남쪽 중앙로와 애조로가 만나는 지점에 **보배길**이 있다. 이 길은 인근에 있는 보미물이 보배스런 물이라는 의미에서 부여된 이름이다. 과거 사람들은 산 속에 있는 깨끗한 물에 신비한 기운이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마시면 장수를 한다거나, 병이 낫는다는 등의 이야기들이 전해오는 물들도 있다. 오늘날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을 보면 옛날 사람들도 물의 중요성을 어렵פות이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보미물 주변은 무속인들이 자주 찾아 기도를 올렸던 곳이라고 한다. 이것은 물의 좋은 기운에서 행운을 가져오려는 노력들이었다.